

KIST, 파스퇴르와 연구개발 협력

12월10일 협력협정 체결 ... 케모인포메틱스 분야 공동 연구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김유승)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울프 네바스)는 12월10일 KIST 접견실에서 김유승 KIST 원장(사진)을 비롯한 양측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에서 양 기관은 연구결과 및 지적재산권 관리 등 연구협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본격적인 공동연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분소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유치된 연구소로 2004년 4월 KIST 내에 설립됐다.

게놈에서 신약까지(Genome to Drug) 프로그램을 통해 말라리아, 결핵 등의 질병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KIST에서 추진하고 있는 <KIST 비전21> 프로그램의 핵심 대형연구과제인 케모인포메틱스 분야에서 KIST와 적극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구협력협정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설립을 위해 KIST와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가 2003년 12월29일 체결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의 후속조치로써 이루어졌으며, 양 기관은 협정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동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12/10>